

[종교/사상]

한국의 종교는 중국의 유불선이 아니다!

한중문화비교연구 프로젝트 其一

2009. 6. 27. 최준식

순서

1. 서언
2. 중국 종교 발달 약사
3. 한국 종교 발달 약사
4. 결론

서언

- ❖ 한국은 전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종교를 받아들였음.
(한국인의 대표 종교인 불교, 유교 포함)

예)

1) **최치원의 “난랑비서(鸞郎碑序)”**

: 한국에는 풍류도와 같은 고유 종교가 있지만

실제로는 유불선을 종교로 신봉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

2) **최제우: ‘유불도 삼교의 운은 다하고 새로운 도인 동학의 시대가 왔다’**

→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지식인들조차 아무 의심 없이
한국의 전통종교를 **유불선**이라 생각하고 살았다는 데에
주목해야 함. 이러한 경향은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음.

서언

- ❖ 과연 한국의 종교가 '유불도' 였을까?
- ❖ 과연 이 순서는 맞는 것일까?

유교 - 불교 - 도교

중국 종교를
설명하는 공식

- ❖ 그럼 한국의 경우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유교 - 불교 - ~~도교~~

신라, 고려, 조선 등
범시대적으로 통용될
수는 없는 순서임!

서언

❖ 중국에서 수입한 불교나 유교를 신봉할 때,
우리는 중국에서 행해진 대로 따르지는 않았다.

→ 한국인들은 중국과는 판이한 종교적 환경을 만들어 낸 듯 함.

예) _

1) 불교 승려들이 예불하는 순서나 유형

: 목탁 치며 경을 외는 모습, 신발 벗고 큰 절 하는 모습

→ 중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임.

2) 유교의 제사: 한국인들은 『주자가례』를 따라서 제를 올린다고
하겠지만 이는 중국의 제사와는 사뭇 다른 모습임.

→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종교가 중국 것 일색이라 생각하지만,
한국은 중국과는 다른 전통을 신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종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내용의 면에서는 다른 면모를 보임.
(중국과는 매우 다른 종교적 환경을 갖고 있음)

서언

❖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 양국의 종교는 어떻게 같고 다른가?
한국과 중국은 종교적으로 어떻게 같고 다른가?

▶ 이 같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

종교는 그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결정.
그런데 한국인들이 생각하듯 중국처럼 유불도를 신봉했다면
두 나라 사람들의 기질이나 성정이 비슷해야 할 것임.

-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음.
중국인과 기질적으로 다른 면이 더 많음.
이는 양국이 신봉하는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나온 현상으로 생각됨.
- 이제 우리는 양국의 종교적 환경을 보게 될 터인데
한국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중국의 종교부터 보자.

1. 중국 종교 발달 역사

❖ 개요

중국 종교는 “유불도”로 요약될 수 있음. (중요도로 볼 때에도 그 순서가 딱 맞음)
따라서 유불도 삼교가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해 나아갔는가를 보면
중국 종교의 발전 양상이 모두 드러날 것임.

❖ 순서

유교의 등장, 도교의 발흥, 남북조의 삼교 교섭,
당대(唐代)에 시작된 본격적인 삼교 교섭(선불교의 형성을 중심으로),
송대의 삼교교섭(성리학의 발흥을 중심으로),
금대 이후의 삼교 교섭사, 중국 도교 정리

유교의 등장 _ 중국 종교 발달 역사

❖ 유교가 전면에 나서게 된 시기?

- 기원전 2세기에 건국한 (전)한 때 관학으로 채택된 다음부터.
- 이후 황제들의 속셈이야 어쨌든 관학의 자리를 지키게 됨.

- **진(秦):** 유가가 있었지만 법가 숭상으로 인해 유교가 전면 등장하지 못함.
- **고조, 6대 황제 였던 무제**
: 내심 법가의 제왕중심주의를 선호했지만
관대한 인상을 주기 위해 유교의 '가면'을 쓴 듯.

유교의 등장 _ 중국 종교 발달 역사

❖ 무제

- _ 초기 유교발달사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인물
- _ 무제가 재위하던 시절, 유교는 심하게 변질됨.

동중서를 위시한 당시의 유자(儒者)들은
주역, 음양오행설 등과 같은 비유학적인 요소 (주술적인 요소)들을
유학의 이론으로 끌어들이어 유교를 유사과학적인 이론으로
만들어버렸음.

예)_

오행의 상생관계와 유교의 부자관계,
전통 경전인 『예기』: 사형 집행 일에 대해 주술적인 모습 드러남.

유교의 등장 _ 중국 종교 발달 역사

❖ 한대의 유교

_ 새로운 유교로 거듭 태어나 다양하게 발달하여 **관학**으로 자리잡음.

■ 호적(胡適):

“(한대의 유교는) 민중의 미신과 국가숭배의 온갖 요소가 융합된 커다란 종합종교가 되었다”라고 지적.

_ 이런 새로운 유교의 발흥에 대해 공자도 깜짝 놀랄 것이라.

by 크릴, 『중국사상의 이해』(1981), 경문사

_ 중국의 마지막 왕조인 **청대까지** 그 자리가 거의 흔들리지 않았음.

_ 중국 **문화**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침.

중국의 정치/사회/교육제도, 중국인들의 가치관/세계관을 결정하는 데에 유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음.

도교의 발흥 _ 중국 종교 발달 역사

❖ (진)한대

1. 무제: 신선을 궁궐로 불러들임.

→ 실패. but 황제들의 불사약 추구는 당(송)대까지 이어짐

2. 민중 운동

- 호시: 황건적

(최초의 도교적 집단이자 중국종교사에서 꼽는 최초의 민중종교 결사집단)

- 발전: 원대 백련교 운동, 청말 태평천국의 난, 현대 법륜공 등

3. 교단 도교의 태동

: 오두미도(五斗米道), 천사도(天師道) '장천사도', 정일교(正一敎) 라는 별칭,

→ 교단 도교로서는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만에까지 전파되어 현재까지 가장 권위 있는 도교 교단으로 남아 있음.

도교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각주 8번 참고)

* 한대: 최초의 도불 교섭(본문 참고)

남북조의 삼교 교섭 _ 중국 종교 발달 역사

❖ 불교와 도가 사상의 융합 _ 선불교의 배태

→ 불교와 노장 사상은 융합하여 후에 **선불교**라는 불세출의 종교 체계를 산출하게 됨.

- 유학을 멀리하고 **청담풍토**를 선호(왕필(王弼), 죽림칠현 등)
- **불교**에 관심 (사대부들과 승려 사이의 많은 교류)

→ 학자들은 거개가 **노자 사상**과 **불교 사상**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됨.

“이런 상황 속에서 노장과 불교는 결국 하나로 혼합되어 일종의 소요한적(逍遙閑寂)하고 청정무위적인 인생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중략) 그 유풍(流風)은 수 . 당에 이르기까지 소멸되지 않고 상당한 잠재력을 발휘했다.”_王治心, 『중국종교사상사』, 전명용 역(1988), p. 109.

남북조의 삼교 교섭 _ 중국 종교 발달 역사

❖ 불교문화의 발달

- 호불군주 양 무제의 에피소드
- 북조 국가인 전진의 3대 왕이었던 부견
- 용문 석굴이나 운강 석굴이 조성
- 기라성 같은 승려들의 등장

- 불교는 당시 중국인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
- 외래 종교가 아니라 중국의 종교로 서서히 토착화.
- 2000년 이상을 발전시킨 유일한 종교

남북조의 삼교 교섭 _ 중국 종교 발달 역사

❖ 유교

- 남조: 유학이 그다지 환영 받지 못했음
- 북조: 유가를 존중해 대학을 널리 중흥
도문제(오경五經박사를 두어 유교경전 연구),
헌문제(향약 세움), 호문제(국자대학, 소학, 명당 만들)

❖ 도교

- 교단 도교의 발달
- 심오한 이론가 출현: 갈홍(葛弘), 도홍경(陶弘景)

남북조의 삼교 교섭 _ 중국 종교 발달 역사

❖ 북위의 무제

: 중국종교사상 불교가 처음으로 **박해**를 받게 됨.

❖ 수나라

: 수문제 때 **과거제도**를 처음으로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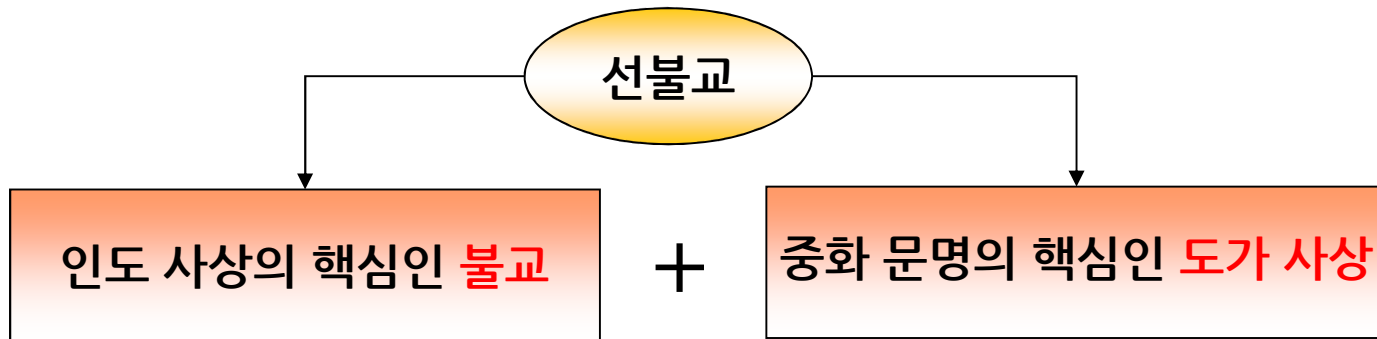
→ **유교**가 한대에 관학으로 시작되었지만
혼란한 남북조 시대 동안 정착되지 못하다가
수대에 이르러 제도화되면서 **중국의 중심 사상으로 뿌리박게 됨**

당대(唐代)에 시작된 본격적인 삼교 교섭

-- 선불교의 형성을 중심으로

— 중국 종교 발달 역사

1. 선불교의 탄생 (유불도 삼교의 창조적 융합)



중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도교와 융합되어 선불교를 탄생시키는 쾌거를 이룸

도교가 종교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불교를 모방한 결과

- ❖ 이 두 종교의 결합은 순전한 형태의 문명 간 교섭이라 할 수 있다.
- ❖ 두 사상은 세계의 여러 종교사상 가운데에서도 보편 사상 계열에 속하는 것이라 이러한 두 사상이 융합되자 **선불교**라는 인류 지성사의 금자탑이라 할 수 있는 대(大)사상이 나왔다. (인도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것, 인도와는 관계없는 중국적인 가르침)

당대(唐代)에 시작된 본격적인 삼교 교섭

-- 선불교의 형성을 중심으로

_ 중국 종교 발달 역사

■ 선불교가 어떤 의미에서 중국적인가?

1. 선불교의 첫 번째 강령 “불립문자”

_ “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 노자 『도덕경』 첫 장과 맥을 같이 함.

2. 직관적인 깨달음 중시 : 인도불교의 “인명론(因明論)”처럼 논리학보다는 직관적인 방법으로 크게 단번에 깨치는 것을 선호

→ 중국인들이 불교를 끌어들이

노장 사상을 중국적인 종교로 업그레이드시킨 게 선불교!.

→ 이런 중국의 독창적인 깨달음 방법은 현대에 와서도 빛을 발하게 됨.

1960년대에 미국 히피들이 기독교를 대체할 만한 사상을 찾을 때 1순위로
꼽은 것이 바로 이 선불교. 인도문명과 중국문명이 조우해 만들어낸 인류
최고의 발명품인지라 그 창의력이 대단해 현대에까지도 위력을 발휘한 것.

→ 노장사상과 불교가 매우 깊은 차원에서 상호교류

당대(唐代)에 시작된 본격적인 삼교 교섭

-- 선불교의 형성을 중심으로

— 중국 종교 발달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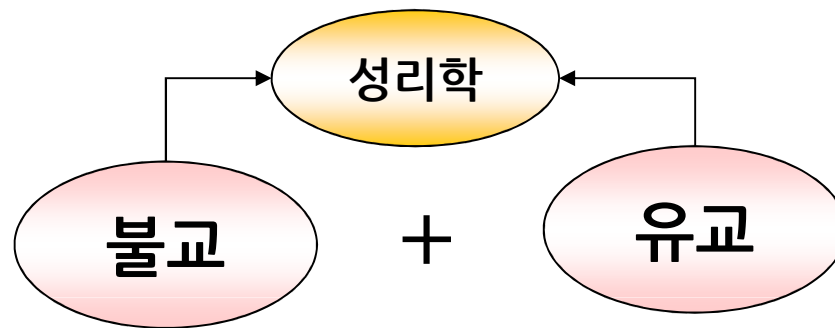
2. 유불도 삼교 담론의 시작

종교가들은 황제 앞에서 자신들의 종교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논쟁을 통해 증명해야 했음.

송대의 삼교교섭--성리학의 발흥을 중심으로

— 중국 종교 발달 역사

1. 성리학의 발흥(가장 핵심 되는 개념을 불교에서 차용함)



송대부터 **쇠퇴**하기 시작

- _ 정치를 하는 데에는 유교가 훨씬 더 적합하다는 사실에 눈을 뜨.
- _ 불교는 오랑캐의 종교(불교 배척)
- _ 한유의 “간영불골표(諫迎佛骨表)”

불교 타도 위해 새로운 사상 고안

유교는 형이상학에 대한 설명이 미비함.

→ “**이기론(理氣論)**” 등장 : 가장 중요한 원리인 이 ‘이’를 불교에서 빌려옴.

‘기’는 도교 계통의 철학에서 온 듯

❖ 성리학에 대한 불교의 영향

- **무극** : 유가에는 없는 개념

불교의 '공'이나 노장의 '무'에서 차용했을 가능성

- **궁리진성(窮理盡性)** : '궁리'는 유교에서 결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서
불교와 관계되어 있을 가능성

- **수련법, 명상법** : 적연부동(寂然不動)한 경지 ,
경의 개념(주일무적 主一無適)

→ '성리학이란 표면은 유가이지만 속은 불교다' (양계초)

금대 이후의 삼교 교섭사 _ 중국 종교 발달 역사

❖ 전진교(全眞敎)

- _ 선불교와 도교가 창조적으로 섞이면서 새롭게 태어난 종교
- _ 삼교합일사상을 기반으로 두고 시작
- _ 중국도교사상 최초로 불사약을 공식적으로 부정(주술성을 극복)
- _ 도선(道禪 : 도교이되 선불교적인 도교라는 의미) 불리기도 함

*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

중국 종교계에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유불도 삼교가 각기 짝을 달리 하면서 융합한 결과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되게 다양한 종교적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중국 도교 정리 _ 중국 종교 발달 역사

❖ 중국도교 = 순전한 종교

■ 종교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 신앙 대상, 교단을 구성하고 있는 사제 조직과 신도 조직,
그리고 경전, 사원

→ 중국의 도교는 이런 요소들을 모두 지니고 있는 순전한 종교임

→ 이렇게 보면 한국에는 중국의 도교와 같은 체제를 갖춘 종교는 없음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유교와 불교는 받아들였지만 도교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음 → 그래서 **한국의 종교는 유불도가 아님!!**

→ 그럼 한국은 중국과 종교적으로 어떻게 같고 다를까?

2. 한국 종교 발달 역사

(조선인들은) 마음 한 구석으로는 불교적 요소에 의존하고 있으나 어떤 때에는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물신적 미신을 믿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 한국인들은 사회적으로는 유교도이며 철학적으로는 불교도이며 고난을 당할 때에는 영혼숭배자이다.

→ 헐버트라는 미국 선교사가 조선조 말에 한국인들의 종교에 대해 남긴 관찰

→ 한국 종교의 전개 양상: 무교와 도교를 중심으로...

중국 종교 수입 이전의 한국 종교

■ 중국의 불교, 유교가 들어오기 전 한국인이 신봉했던 종교는?

: 한국인들의 고유신앙은 샤머니즘으로 추정됨.

- 정치적 수장자가 종교 사제를 겸함(단군왕검)
- 청동기시대 정치적 수장자의 세 가지의 유물 동검과 동경과 동령(방울)
: 신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기물
오늘날의 무당들도 이 세 가지 기물을 매우 중시
-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같은 제천의식
- 특히 신라의 지배층은 그들의 고유 신앙이었던 무교를 신봉
: 박혁거세, 남해차차웅, 신라의 왕들이 썼던 금관

→ 이렇듯 초기에는 무당의 지위가 높았음.

중국 종교 수입 이전의 한국 종교

- 불교와 유교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면서 무교는 점차 세력을 잃게 됨!

- 고구려의 지배층이 고유 신앙인 무교로부터 불교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
- 무교는 그 지위가 계속 하강해 사회 전면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제2선에서 주류에서 밀린 사람들을 담당하는 보완적인 종교로 자리매김,
이런 현상은 현대까지 지속. : 남성 < 여성, 지배층 < 피지배층

→ 고유 신앙이 유력했던 신라에서조차 무교로 대표되는 한국의 고유 신앙은 공식적으로는 사회의 전면에 나서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교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단지 수면 밑으로 잠수했을 뿐이고 사회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력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삼국 이후 수입 종교들의 발전상--불교와 유교의 경우

[불교] 삼국 모두 국교로 지정

1. 고구려: 자료 미비

2. 백제

- 일본에 전파: 일본 불교의 초석 마련은 모두 백제의 승려들
법륜사, 광륜사, 동대사 광륜사(미륵반가사유상)의 유물들
- 불교 예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화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음.
- 멸망 후 신라에 전달.

3. 신라

- 백제가 전해준 정신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 불교 예술의 전범을 만들어냄.
- 불교예술의 근간 마련: 석가탑이나 석굴암(본존불), 에밀레종 등
- 대 종교사상가 원효 등장(교학과 실천 / '나무아미타불' 정도종을 설파)
중국 불교가 한국적으로 변형되어 한국불교가 탄생한 발판 마련

→ **외래종교의 틀에서 벗어나 한국 땅에 토착**되었다.
이렇게 생성된 한국 불교는 조선말까지(지금까지) 이어 전해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불교는 분명 **한국인의 종교**가 되었다.

삼국 이후 수입 종교들의 발전상--불교와 유교의 경우

[유교] 최초 유입: 한자가 들어왔을 때 / 본격 유입: 한사군이 설치된 다음 / 정착: 조선

1. 신라: “국학”에서『논어』,『효경』,『주역』가르침. / 독서삼품과(8세기)
→ 불교 일색이었기에 유교 연구의 수준 높지 않음

2. 고려: 과거제도의 실시(광종)
유학자들이 정치 전면에 나서게 됨(최승로의 시무책)
연등회와 팔관회를 폐지
국립대학인 국자감을 만들어 유교 경전을 교육
사학의 흥기: 최충헌이 만든 문헌공도(文憲公徒)
→ 유교는 서서히 고려에 정착되었음 → 고려 말 주자학의 수입 !

유교가 아직은 한국인들의 의식이나 가치관이 형성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지만 서서히 한국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교가 한국인들의 의식을 주도하게 된 것은 조선 중기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었다.

삼국 이후 수입 종교들의 발전상--도교의 경우

• 도교는 이 땅에 정착되었는가? 아닌가?

1. 최초 유입(7C 초): 연개소문의 오두미교를 수입(이후 재 등장 없음)

2. 삼국시대(신라): 김가기(金柯己) → 최치원(『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
『고려사』의 기록(중국 도교와 어떤 관계 있는지는 모름)

3. 고려: 자료 미비(민간의 도교 수행 알 수 없음)

- 최초로 궁중에 도관을 세워 도교를 적극 수용.(예종, 1108년)
- 종교적인 욕구보다 중국 문물 적극수용하려는 태도의 일환.
- 옥황상제(도교 최고의 천신 중) 수입: 한국인의 최고신 대접 받게 됨

- 도교가 왕실을 중심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신봉되었음.
- 특히 도교가 민간에는 정착되지 못했음.
→ 고려의 민간에는 무교와 불교가 성행하고 있었기에 비슷한 기능의 도교를 굳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었을 듯.

삼국 이후 수입 종교들의 발전상--도교의 경우

4. 조선

1) 왕실

- 이단 취급 받던 도교 의례는 규모 대폭 축소.
→ 결국 왕실에서마저 멀어져 감.
- but 관제묘(關帝廟) : 계통이 확실한 도교계 신령,
전국적으로 관제묘가 생김(동묘)

2) 민간

- 수경신(守庚申) 관습 1960년대까지 지역적 존재(but 현재 일개의 편린도 없음)
- 도교 계통의 경전 유행(음부경(陰符經), 옥추경(玉樞經))

- 한국에 선도(도교)가 존재했다 하더라도 대부분 민간 신앙과 섞여 양자를 구분하는 일은 불가능.
예) 중국 도교(민속)에 기원을 둔 성황신, 조왕신, 칠성신
- 한국의 민속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혼합되어 정체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

삼국 이후 수입 종교들의 발전상--도교의 경우

▪ 도교는 이 땅에 정착되었는가? 아닌가?

→ 중국의 도교와 비교해보면 한국 도교에는 실체가 없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남!

중국도교

- 다양하고 명확한 이름의 **도교** **교단**,
- 도교 **사원**인 도관 혹은 **원/궁**이 중국 전역에 산재,
- 수백의 **신도** 존재,
- 다양한 **종교 의례**,
- 엄청난 양의 도교 **경전** 존재

VS

한국도교

- 이에 버금갈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음.
- 그래서 **한국 도교는 실체가 없다는 것임.**
-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는 나중에 **무교를 다루면서** 언급할 것임.

중국 종교 수입 이후의 무교

- 불교와 유교가 지배 종교가 되면서 무교는 **비실세의 종교**가 됨.

1. 고려

- 이규보의『동국이상국집』의 “노무편”
당시 무당의 인기, 현행 황해도 곳과 거의 같음
→ 한국 무교의 생명력이 얼마나 질긴가를 보여주는 놀라운 일
- 유학자들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곳을 금하거나 무당을 도성 밖으로 쫓아냄
But 무당들의 기세는 변함이 없었음
(기우제 참여 무당 300명, 좌정승의 딸도 무당 될 정도, 귀족출신 무당)

→ 고려조 무당들의 지위가 낮지 결코 않았음.
수많은 고려인들이 신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

중국 종교 수입 이후의 무교

2. 조선

- 조선은 인류역사상 가장 유교적인 국가조선 초부터 **금압의 대상**
 - 성리학자의 입장: 무교는 지극히 **저속한 것**으로 보였을 것.
음악 크게 연주, 격렬한 춤, 잡신 신봉, 냉철한 이성 결여,
감정에 치우친 기복행위 등 경멸의 대상
 - **억압책**: 수도 내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 천민으로 강등, 세금 부과
--> 승려와 더불어 최천민.
but, 국가는 무당을 멀리 할 수만은 없었음.
- * 그러면 무당은 가지고 있지만 **유교도들은 가지고 있지 못한 기능**은 과연 무엇일까?

→ **사제와 치병**의 기능
: 기우제_성수청 / 전염병 치료_활인서,
북경에 사신을 보낼 때_사신당 / 명성황후의 전속무당

중국 종교 수입 이후의 무교

- 일반 백성들:

무당은 일반백성들과 가장 가까운 사제였기 때문에
국민들은 왕실이나 양반들보다 훨씬 무당들과 가까웠을 것임.

* 순조 때 무당 수?

- 총독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의 무교에 대해 연구한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은 **5천명**일 것으로 추산했다.
이것은 무당들이 세금을 낸 기록을 가지고 추산한 것.

* 1930년대의 무당 수?

- 당시 인구가 약 2천만인데, 무당의 숫자는 **1만 2380명**이었다고 한다. 아마도 무당은 이 숫자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보면 무당의 숫자는 결코 적지 않은 것이 된다.

중국 종교 수입 이후의 무교

3. 현대와 무교

- 무교는 서양화된 교육이 시행되면서 미신으로 격하되어 홀대
→ 서울 시내 수십 군 데 굿당이 대폭 사라짐(국사당, 사신당 제외)
- but 자국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무교도 서서히 부활
→ 서울 소재 굿당은 다시 수십 개로 / 굿이나 무당에 대한 관심 역시 성황

-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법인을 만들 : 대한경신연합회
(등록 무당 몇 명?)
- 사회적, 국가적 인정(인간문화재,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
- 무당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

****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당들의 활동이 그리 눈에 띄지 않는 이유는?**

- 구심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 조직이 없기 때문
- 아직도 사회의 편견이 심하기 때문

중국 종교 수입 이후의 무교

- 지금까지 우리는 무교가 한국종교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가를 보았다.
- 중국의 도교가 한국에 수입되지 않은 것은 한국에는 바로 이 **무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중국에서 도교가 하는 기능을 한국에서는 무교가 도맡아서 했던 것이다.**
- 무당은 도사와 같이 수없이 다양한 신을 섬을 섬기면서 신도들의 복을 대신 빌어주고 마을곳 같은 데에도 깊게 관여되어 있었다. 이렇게 한국에는 전국 방방곳곳에 수많은 무당들이 따리를 틀고 도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 **굳이 비슷한 기능을 하는 중국의 도교를 수용할 까닭이 없었을 것이다.**

→ 따라서 한국의 전통 종교는? ‘유불도’가 아니라 ‘무불유’라는 것이다.

* 일본에서도 도교는? 한국에서와 같이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일본의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어떤 요인 때문일까?

중국 종교 수입 이후의 무교

- [정리] 동북아 삼국이 신봉했던 종교가 어떻게 같고 다른가?

	중국	한국	일본
▶ 보편종교	유교/불교	유교/불교	유교/불교
▶ 특수종교	도교	무교	신도

보편 종교는
유교와 불교로 3국이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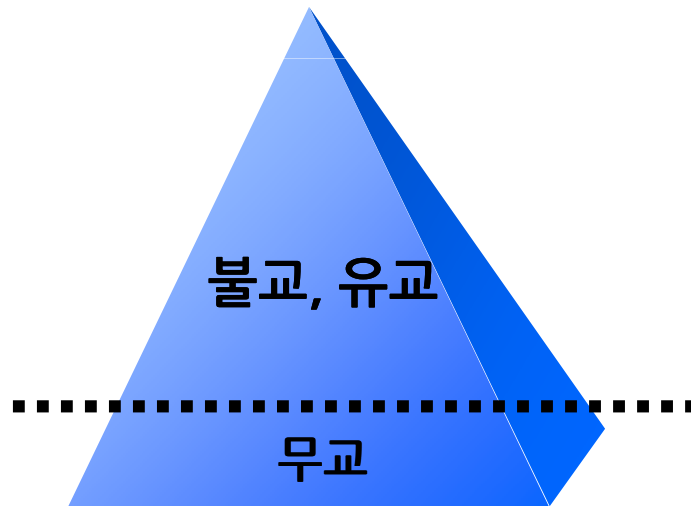
결론

- ❖ 유교와 불교가 들어오기 전
: **고유의 종교가 있었음**
(통칭 '무교'_신교(神敎)니 풍류도 등)
- ❖ 불교의 등장(고구려나 백제, 이후 고려까지의 국교)
: **무교**는 수입 종교의 저변에 깔려 드러나지는 않지만 여전히 기층부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었음.
유교는 불교처럼 사회를 리드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부차적인 종교로 정치윤리 면에서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음.
이것을 도표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음.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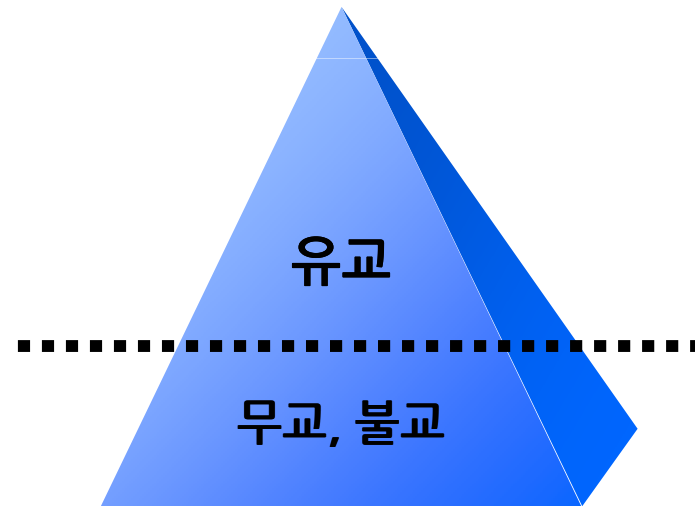
❖ 삼국부터 고려까지

: 불유/무(or 무불유)



❖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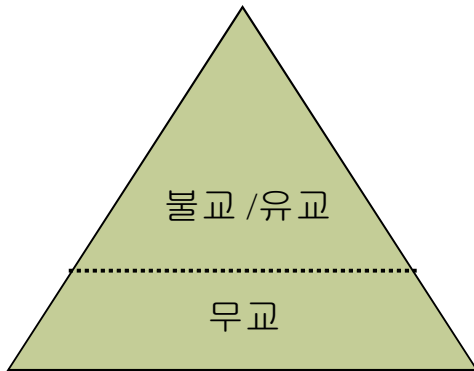
: 유불/무 or 유/불무(무유불)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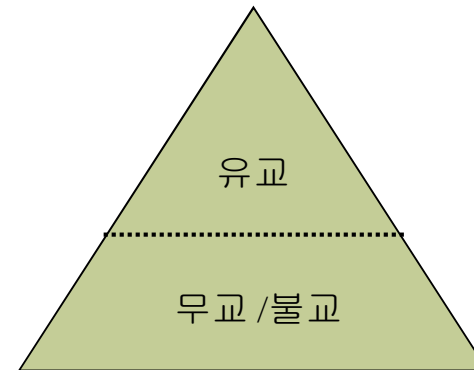
❖ 삼국부터 고려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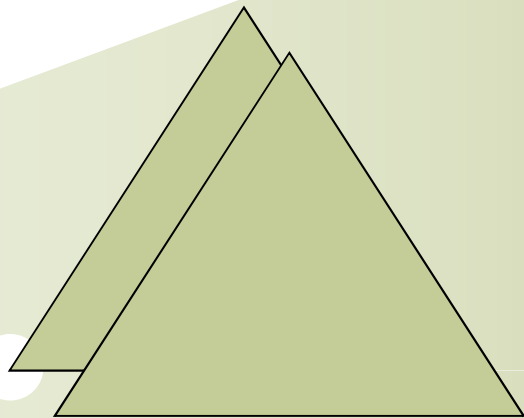
: 불유/무(or 무불유)



❖ 조선

: 유불/무 or 유/불무(무유불)





끝
_ 감사합니다